

# 유다 왕조를 통해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들 -역대하-

역대하 36:11-23, 에베소서 2:1-10

정윤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세 가지 역사관과 그 의미

(1)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랑케),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크로체),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보는 것(카)

(2)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참고해야 함 :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재해석함으로써, 나의 삶을 반영하고, 그 교훈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함

1.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 : 역사관(歷史觀)의 차이 (선지자적 사관/제사장적 사관)

2. 역대기의 여러 왕들 : 교훈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따른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결론 : 깨달아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

- (1) 하나님께 돌아오면 적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 (2) 세상의 문제는 복음과 교회가 회복될 때만 해결될 수 있다.
- (3) 사단과 그 활동을 이길 길은 오직 믿음, 말씀, 예배뿐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겸손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 모든 문제가 전횡점이 되고 발판이 되어, 선진국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풀이 되고 삶에 약이 되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셨다. 세상의 역사는 비방을 통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시작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우주의 시작과 세상 만물을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교훈을 얻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보다 중요한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여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시대를 기록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하를 중심으로 유다 왕조를 통해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역대하는 1장에서 36장까지 모두가 남 유다 왕조에서 왕좌에 오른 20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의 열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고, 남은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다.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맥은 계속 끊겨서 이어지지 못했다. 왕조가 9개나 있었다. 조선은 이제 가문이 500년을 이었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북 왕조는 열이홉 명의 왕이,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달 겨우 재위한 경우도 있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믿음의 왕이 없었다. 모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어떻게 보면 과장법인데, 권력을 붙잡고 나면 믿음 가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싶다. 남 왕조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의 세 왕을 빼고 20명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왕들이 있었다. 역대하에서는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만 있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예로보암의 반역과 국가의 분열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되고, 이어서 바사 곧 페르시아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다. 그러면, 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미 있는데 왜 저자는 같은 역사인 역대상하를 왜 기록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되겠다. 역대상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고, 역대하는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20명의 왕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왕조 19명의 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아니었다. 그러나 남왕조 20명의 왕들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이어받는 언약의 백성들이었다. 한 번 위기가 있었다. 북왕국에서 가장 약했던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의 딸이 남왕국에 시집을 왔다가 정권을 잡고 잠시 여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다 죽었지만 막내아들 하나가 아주 어릴 때 살아남아서 제사장에게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가문을 보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을 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 약속 그대로 고레스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지만, 돌아와 보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달리,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져버렸고, 백성들은 가난한데다 바사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상하의 저자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 역사가 사실 남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느낌이 어땠겠는가. 고레스왕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강성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렸다. 유대인들이 500년, 1천 년을 넘어 2천 년이 가까이 되도록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에야 나라가 회복되었지 않나? 영국, 미국이 그것을 도와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느끼겠는가? ‘아,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통해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알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 한 가지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놓친 것이다. 예배도 성막도 성전도 제사도 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헬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성경인데, 유대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못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못 믿고 있다. 언제까지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보다 천만 배로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오히려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이라고 한다.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정치를 잘 해서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전쟁을 잘 해서 이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 않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줄 아는가? 안 된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 성적도 올라간다. 나는 시험을 많이 쳤다. 대학, 대학원, 목사고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험을 쳐야 했다. 요즘은 시험에서 해방되어서 너무 좋다. (웃음) 시험을 많이 칠 때인데, 바쁘니까 교회 일을 그만뒀야 되겠다, 잠시 쉬어야겠다 생각도 해 봤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성격이 더 안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바쁘게도 더 전도하고 봉사했다니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할 때 학사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웃음) 영혼이 잘 될까?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요삼1:2) 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개인과 나라를 만드시 치셨다.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시 치신다. 반대로, 바보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 보라. 하나님은 신기한 문을 여신다. 나는 경험했다. 능력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교훈들이 그것이다. 공부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사업도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가정도 말씀,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잃은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무언가를 잃었다면, 여러분이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배를 등한히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 서론 : 역사를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과 그 의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세 명의 역사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 첫째가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한 역사학자다. 이 사람은,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입장에서 가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역사를 고중하여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실증주의 사관, 객관주의적 사관이라고 한다.

(2) 둘째는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인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다. 이 사람은 역사의 본질이나 연구 방법이 자연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거의 일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고 했다. 랑케처럼 있는 그대로의 일을 다 기록하려면 과거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술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역사의 서술에는 부득이하게 역사가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술한 것이 유일한 진실인 양 치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것을 상대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는

것이다. 모든 역사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거북선이 1층인가, 3층인가? 입에서 불이 나왔다, 포탄이 나왔다?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뿐이다. 거북선은 몇 대였는가?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모든 역사를 비디오프로 찍어서 보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취합해야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눈, 역사가의 주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 바로 적은 것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100여 년 후에 목적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학자의 견해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사복음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관점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서술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나타난다.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료로 보았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3) 또 한 명의 역사학자는 영국의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 1892~1982)이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이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학생들은 꼭 읽어보라. 다만, 그냥 읽으면 힘들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는 뭐라고 주장했는가? 랑케의 사관이 역사의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었고, 크로체는 현재에 두었다면, 카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는 사실만을 추종하는 노예도, 사실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역사는 평등한 관계에 있으며, 한도 내에서 역사는 역사를 선택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재적용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 악한 왕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받고 꾸지람을 받는 거구나. 이 왕은 이렇게 잘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지금이 기회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하고 갱신하면 그런 복을 받겠구나.'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 1.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

(1) 대부분 서론에서 설명을 다 했다. 열왕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쓴 것이고,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언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남왕조 유다의 역사다.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다.

(2) 그래서 사관이 전혀 다르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사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도,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분류하고, 역대기서는 역대기 사관이라고 따로 본다.

① 신명기 사관의 책들은, 신명기를 중심 사상으로 서술하는데, 신명기의 각종 율법을 거스르는 왕은 악한 왕으로 본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며, 레위인, 제사장,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다. 또한 인과응보사상이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② 그런데 역대기는 다르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잘못이 안 나온다. 예배를 회복한 장면만 나온다.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이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못을 하면 꾸짖는 것이 선지자 아닌가?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왕들을 꾸짖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잘못된 것을 감춰주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잘못된 기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가정에서, 형제들 중에서, 나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우고 용서해 버리시기 바란다. 좋은 점만 강화시키고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열왕기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관이라면, 역대기는 언약, 특별히 다윗 언약의 관점, 성전과 예배 회복의 관점에 근거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2. 역대하의 왕들

그렇다면 역대하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의 삶에 그들의 교훈을 적용해야 되겠는가? 몇 명의 대표적인 왕들을 살펴보자.

(1) 솔로몬 :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았다. 솔로몬은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대하1:6에 보면, 천 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왕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모든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명한 모든 것을 성취시켰다. 대하8:14을 보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

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 조상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훈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잘못을 그대로 이 어받지만, 다른 사람은 부모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은 그것을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 가훈이 '보중서지 말라'고 되어있는 집도 있었다. (웃음) 아버지가 보중 썼다가 망했기 때문이다. 조상의 교훈을 통한 간접 교육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좋은 교훈을 얻고, 세월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한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서 섬기게 했고, 레위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게 했다. 이 구절을 읽어 보니까, '야, 그러면 성가대를 시간 정해서 교회 앞에서 매일 찬송하도록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못 하면 기계에도 시켜야지. 입구에 찬송을 틀어야 되겠다 싶다. 어떤 장례식장에 갔더니 3일 내내 울더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우나 했더니 녹음한 곡소리를 틀어놓은 것이었다. (웃음) 우리는 찬송을 틀어야 되겠다.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은 그대로 붙잡은 것이다.

(2) 르호보암 : 르호보암은 초기 3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나, 대하12:1을 보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음지라." 그러니까 대하12:5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결국 애굽 왕 시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다.

(3) 아비야 :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한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배워 온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레위인 아닌 제사장을 돈 받고 세웠지 않느냐?" 전쟁이 나서 유다 군대 40만이 이스라엘 군대 80만과 싸우게 되었을 때, 이것을 아비야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숫자가 절반인데도 승리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다.

(4) 요담 : 쪽 뒤로 가서, 대하27장에는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점점 강해지게 되기를 바란다. 삼상3:1에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5) 아하스 : 아하스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대하28장을 보면,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다. 특기할 만한 것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했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오히려 더 여호와께 범죄한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때리셨는데 그제 싫다고 더 멀리 가는 것이다.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야,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 그럴 때는 나가야 하는가? (웃음)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6) 선한 왕들 : 그 외에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비야, 웃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다윗과 같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시도한 왕들이 있었다.

## 결론 : 깨달아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깨달을 것과 실천할 것을 나누고자 한다. 20명의 왕들을 보면서, 나는 참 많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다.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1) 하나님께 돌아오면, 대적들도 고레소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적들도 여러분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된다.

(2)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에 빠져 버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을 섬기면서 근본적으로,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멸망하고 자신과 후대가 다 멸망하게 되는 이 사회의 많은 문제는, 정치를 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만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직 성전, 제사, 율월일이 회복되고, 말씀이, 종교가 개혁될 때 유다는 회복되었다. 우리 후대들도 마귀에 지배 받는 세상을 개혁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마지막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왕으로 군림하여 세상을 속이고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단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예배뿐이다. 말씀뿐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교훈을 붙잡고 적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해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와 믿음과 성령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정, 나라, 민족, 세계, 속한 학교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